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서로가 형제자매 공동체이며 지체요 가족이라는 철저한 민족의식 때문입니다.

결론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가족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식에서 서로를 돌보지만, 교회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형제자매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성도간의 사귀를 통해 더욱 흘러 내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새문안교회가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훈기를 전하는 사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1. 외로움의 시대에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2쪽 위 밑줄)
2. 교회에서 지체의식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나요?
3. 지체의식을 갖고 형제자매를 대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는지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4.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 2024년 교회표어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일 4:16)

교회, 성도들의 사귀(Santorum Communio)

- 사도신경

- 찬 송 220장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찬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 기 도

- 성경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 삶 나누기

나를 포장하지 않고도 나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외로움의 시대, 성도의 사귄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은 21세기를 '외로운 세기'로 규정합니다. 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통계를 소개합니다.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교회의 정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보면 이 통계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6가지 기본요소입니다. 이 중 21세기 AI문명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요소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귄'입니다. 교제, 사귄이 약하면 그 교회는 허약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사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서로가 맘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자기 삶의 애환을 오픈해서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1.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이 다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정통신앙인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나와 동일한 신앙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는 나와 형제자매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공통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에서 이제까지 했던 신앙고백을 나와 동일하게 한다면 그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내 형제자매입니다.

2.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아울러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형제 그리스도인은 내 지체(body)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공통의 신앙고백을 진정으로 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혈연으로 갈리고, 지연으로 나뉘지고, 학연에 따라 패거리를 만들고, 자기 소속된 사역단체에 따라 그룹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며 지체임을 인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3. 공동체의 실패를 용납하지 말라.

유대인 사회에는 고아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양쪽 부모를 다 잃으면, 가까운 친족들이 키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거의 무이자로 자금을 대줍니다. 또 선배가 모든 노하우를 철저하게 전수해주어 후배의 성공을 돕습니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됩니다.

유대인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고 공동체가 결코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